

스포츠

개관

2017년은 한국 스포츠에 환희와 영광, 아쉬움과 좌절이 교차한 한 해였다.

축구는 '절대 1강'으로 손꼽힌 전북 현대가 독주를 펼치면서 정규리그 36라운드 만에 두 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시즌 득점왕은 22골을 넣은 조나탄(수원)에게 돌아갔고, 도움왕은 13개의 손준호(포항) 차지가 됐다. 이동국(전북)은 K리그 최초로 200골 고지를 넘고, 염기훈(수원)은 60-60클럽에 가입하는 등 타이틀보다 값진 대기록들도 탄생했다.

야구에서는 KIA 타이거즈가 8년 만에 프로야구 통합우승을 이뤄낸 가운데 '라이언킹' 이승엽이 은퇴를 앞둔 고별 투어를 벌였다.

KIA는 두산과의 KBO리그 한국시리즈에서 4승 1패로 여유 있게 우승컵을 차지하며 타이거즈의 우승 횟수를 11번으로 늘렸다. KIA의 에이스 양현종은 정규시즌 22년 만에 토종 선수 20승을 달성한 뒤 한국시리즈에서도 우승을 이끌어 프로야구 출범 후 최초로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화려한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 심판과 구단 간 금전 거래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KBO는 심판과 구단 간 금전거래 문제 축소·은폐 의혹에 휘말리며 야구팬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

골프에서는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첫선을 보인 슈퍼루키 박성현의 돌풍이 대단했다. 박성현은 데뷔 첫 우승

을 메이저 무대인 US여자오픈에서 해내는 등 시즌 2승을 달성하며 일찌감치 신인왕 수상을 확정하고 233만5천883달러(약 25억4천260만원)의 상금을 쓸어 담으면서 상금왕에도 올랐다. 올해의 선수로도 뽑혀 3관왕을 달성했다. 데뷔 첫해의 신인 3관왕은 1978년 LPGA 투어 역대 최고의 신인 낸시 로페스(미국) 이후 39년 만에 나온 대기록이다.

한국 육상의 간판 김국영은 2017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 대회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0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다섯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한국 테니스의 대들보 정현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우승했다. 한국 선수의 ATP 투어 우승은 2003년 1월 이형택이 아디다스 인터내셔널 정상에 오른 이후 14년 10개월 만의 쾌거였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힐 성화가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한국에 도착했다.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평창올림픽 성화는 그리스 올림피아의 헤라 신전에서 채화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두고 도착해 평화와 화합의 지구촌 겨울 스포츠 축제 시작을 알렸다.

아쉬운 장면도 있었다. '국민타자' 이승엽은 10월 3일 정규리그 최종전을 끝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 시즌을 마치고 은퇴를 선언한 이승엽은 KBO리그 사상 최초로 은퇴 투어를 하며 팬들과 작별하는 시간을 가졌다. 51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들의 보금자리였던 태릉선수촌은 충북 진천선수촌의 공식 개촌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월드컵 축구대표팀 · 해외축구 활약〉

한국 메이저 스포츠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축구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다. 축구대표팀은 한국의 9회 연속 월드컵



▲ 9월 5일 오후(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분요드코르 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우즈벡과 0-0 무승부를 거두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한국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과거를 이뤘으나 경기력 논란이 불거지며 사령탑이 교체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마지막 10차전까지 치르고서야 이란에 이어 조 2위로 겨우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행은 아시아에서는 최다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6번째일 만큼 값진 기록이었다. 하지만 대표팀의 연이은 졸전은 축구팬에 큰 실망을 안겼다.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예선 두 경기를 남겨놓고 슈틸리케 감독을 전격 경질한 뒤 신태용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그러나 대표팀의 경기력이 나아지지 않았고 신태용 감독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급기야 거스 히딩크 전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앉히려는 팬들의 움직임까지 일었다. 다행히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한일전에서 신태용호가 일본을 4대 1로 격파하는 '도쿄 대첩'을 이뤄내면서 '히딩크 논란'은 잠잠해졌다.

연합뉴스 집계 2017년 스포츠 10대 뉴스

- ① 타오른 평창 불꽃...30년 만에 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
- ① 한국 축구, 천신만고 끝에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 ③ 박성현 열풍...39년 만에 LPGA 신인 3관왕(287점)
- ④ 프로야구 KIA, 8년 만에 통합우승...양현종 MVP 석권
- ⑤ 전설 속으로 떠난 이승엽...KBO리그 첫 은퇴투어
- ⑥ 손흥민 아시아 선수 EPL 최다 골 달성
- ⑦ '10초07'...육상 김국영, 100m 한국 신기록
- ⑧ 축구대표팀 감독 수난...슈틸리케 경질, 신태용·히딩크 논란
- ⑨ 국가대표 요람 태릉 시대 마감...진천선수촌 공식 개촌
- ⑩ 테니스 정현, ATP 투어 우승

*연합뉴스 스포츠부에서 주린 33개 후보 항목을 바탕으로 12월 6~12일 언론사 스포츠 담당 부서에 이메일을 보내 10대 뉴스를 뽑도록 한 뒤 순위를 확정했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손세이셔널' 손흥민의 활약도 톱10에 포함됐다. 토트넘의 공격수인 손흥민은 기성용이 보유한 아시아 선수 EPL 정규리그 시즌 최다골(9골)을 넘어섰다. 손흥민은 여세를 몰아 시즌 2골로 '차범'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이 1985~198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기록한 한국인 한 시즌 유럽리그 최다골(19골)마저 31년 만에 갈아치웠다.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2018.2.9~25,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 마련된 12개 경기장에서 열렸다. 평창과 정선에선 썰매와 설상 종목 경기가, 강릉에선 빙상 종목 경기가 각각 진행됐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올림픽인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엔 92개국, 2천920명의 선수가 참가해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특히 북한이 8년 만에 출전해 올림픽의 정신인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일본(1972년 삿포로·1998년 나가노)에 이어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 개최다. 평창올림픽은 처음으로 동계올림픽 총 금메달 수 100개를 넘긴 대회로 선수들은 15개 종목에 걸린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했다. 개·폐회식은 3만5천 명을 수용하는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 2018년 2월 9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카운트다운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이어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4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5번째 나라가 됐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아시아 대륙에서 3회 연속 동·하계 올림픽이 열린다.